

투데이

“U대회 양궁장, 광주FC 전용구장 활용”

羨시장 시민과 대화 “체육관·수영장·양궁장 匾別 1곳씩”

광주시가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에 대비해 신속하는 양궁장을 대회 이후 광주FC 전용연습구장 및 시민구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다목적 체육관·수영장·양궁장 등을 자치구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자치구마다 1곳씩 배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강 시장은 축구타운을 광산구에 건립해달라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체육관·수영장·양궁장 중 1곳은 광산구로 갈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 양궁장에 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770억원, 600억원, 150억원 정도의 예산이 각 각 투입될 예정이다.

강 시장은 “애초 계획에는 체조선수들이 쓸 다목적 체육관의 경우 비핵심 주변에 들어서게 돼 있는 등 부지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 있다”며 “잘못된 원인을 그대로 추진할 수는 없으며, 한 번 결정된 것이니까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선 4기 당시 광산구에 들어서기로 결정된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의 입지는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이들 광주U대회 시설 입지를 오는 9월 말이나 10월 초께 운영결과가 나오면 자치구 간 균형발전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11월 중에 결정할 방침이다.



함평천치 한우 맛 보러..

지난 2일 오전 함평군 엑스포공원 앞 광장에서 ‘함평천치한우 시식회 및 할인행사’를 개최한 함평군이 관광객 500명에게 국가리용 함평천치 한우고기 1kg씩 모두 500kg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함평군은 7월 한 달 동안 함평축협을 비롯한 지역 17개 한우 취급업소에서 함평천치 한우고기를 최고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U대회 선수촌 ‘조합원’ 분양 신청...7일부터 한달간

市 “100% 신청 기대”

2015년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으로 쓰일 광주시 서구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을 대상으로 4일 분양신청을 공고하고 7일부터 한 달간 조합원으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분양을 거부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조합원이 10%를 넘을 경우 광주도 시공사가 초과분을 인수하기로 한 만큼 이번 조합원 분양이 얼마만큼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가 선수촌 조성사업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3일 “화정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사업과 관련 지난달 15일 사업시행인가고시 후 조합원 분양계획을 수립해 4일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에는 59㎡ 390세대, 84㎡ 3,126세대, 101㎡ 210세대 등 분양면적과 세대, 분양 대상 대지 및 건축물, 개략적인 분담금, 분양신청자격 등이 명시돼 있다.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은 7일부터 한 달간이며, 분양을 받을 조합원은 분양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춰 기간 내에 조합사무실에 제출하

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민선 5기 광주시가 추진중인 도시재생의 핵심사업”이라며 “조합원들이 재입주 확인시에 보여 주었던 약속대로 100% 분양 신청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택재건축 방식으로 건립하는 화정주공아파트는 서구 화정동 621번지 일대 19만4496㎡의 면적에 지하 2층, 지상 15층~33층, 35개동 모두 3726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2012년 4월 내 착공해 2015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감사원 오늘부터 140명 투입

최근 국토해양부의 연찬회 황우수 등 공직 비리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공직 기강 확립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감사원도 칼을 빼들었다. 감사원은 오는 4일부터 공직감찰본부와 자치행정감사국 감사인력 140여 명을 투입,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통상 공직기강 점검시 70명 안팎의 인력을 투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이례적인 규모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수집한 정보와 민원 등을 종합 분석해 4개 분야 12개 유형으로 나눠 집중 점검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농어촌公 ‘J프로젝트’ 차지사 발언 반박

“감정평가 토대로 땅 양도” 입장 재확인

영남·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 프로젝트)의 간직 땅 양도와 관련, 토지 소유자인 농어촌공사가 박준영 전남지사의 “J프로젝트 포기 검토” 발언에 대한 반박성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하는 등 전남도와 시가지가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일 ‘박 지사, J 프로젝트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농어촌공사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J프로젝트 사업구역에 대해 협조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정

부 승인을 거쳐 추진한 사업인데도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박 지사의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영산강 Ⅲ지구 간척지 내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구성·삼포(F1경주장부지포함)·삼호지구는 정당한 감정평가를 토대로 양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공사는 F1 경주장 양도·양수에 대해서도 “F1대회운영법인인 카보(KAVO)와 감정평가조건에 대해 감정평가법에 따르기로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카보가 새로운 감정평가기관을 내세우는 등 이중적인 입장을 보이

면서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만금에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J 프로젝트를 포기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박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농어촌공사측은 “구성 지구 감정평가에 대한 조속한 신뢰성 확보와 F1 경주장 부지에 대한 양측 합의에 근거한 감정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오히려 전남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가 전남도와 현격한 시가차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정부가 전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공사 간 중재에 적극 나서 사업이 때 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 ‘명품 대학촌’ 만든다

22개大 2016년까지 주변환경 개선 프로젝트

전남도가 도내 대학 주변의 무질서한 환경 개선에 칼을 들어붙였다. 전남도는 3일 도내 22개 대학 주변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바꾸기 위한 ‘대학촌 도시계획’을 마련,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촌을 살려 대학 본연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면서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우선 4개 대학(목포대·대불대·정암대·전남과학대) 주변 정비를 2012년까지 완료하고 시작하고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분류해 2016년까지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사업은 대학 주변 특정 구역을 ‘대학촌’으로 지정하고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야외공연장·문화센터·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쾌적한 주거·편의시설을 보장하면서 유흥업소 등 면화 분위기를 해치는 학교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이미 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 ‘대학



주변 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해놓은 상태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법정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해 유흥업소 등 면화 분위기를 저해하는 시설의 건축 인·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김준규 총장 막판 고심...사퇴 무게

MB 반대...후임 인선때까지 남아 사태수습도 고려

김준규 검찰총장이 거취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수사권 관련에 지난달 29일 밝혔던 대로 4일 입장 표명을 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서명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끝까지 방어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

을 지고 홀로 사퇴하겠다고 발표하는 방안도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총장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혼란으로 어지러워진 검찰 조직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즉각 사퇴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는 8월19일까지 임기인 김 총장이 이미 지난달 30일 사의를 반려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퇴를 강행하는 것이 검찰 조직에 특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즉각적인 사퇴 의사를 유보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자리에 남아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있다고 검찰 관계자들이 전했다. 청와대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후임 검찰총장을 낙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김 총장에게는 후임자가 정해지는 시점에서 총장 직무대행체제를 만들어놓고 조직을 떠나는 방안도 대안 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매투자 OC & A 연구소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주)일화 기획생산 호남지사모집 당사는 (주)일화의 기획생산 공식직접체로 향암·항남노로 세계특허 10개획득한 신물질 발효인삼·홍삼을 취급할 호남지역 파트너를 구합니다

한자교육 <천자문과 한자성경으로 배우는 한자교육> 혁명 <아동 : 00명, 성인 00명을 3개월, 1년 과정 모델교실에 특별 초대함> 한자성경으로 단기간에 한자를 한글처럼 알게 됩니다!

화정주공조합 2011-04호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다음 내용으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공고하오니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특별자금 공무원 특별자금 2011년 6월 30일 현재 1.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2. 대출금액 | 2백만~4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보증)

공무원 대출 무담보·무보증·무보증·무보증 무보증·무담보·무보증·무보증 APT 담보대출 한도: KBI세-80%+0(60%)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보증금의-80%

한자교육(전도학교)연수원(시군구 지부 모집 중임) 광주시 광산구 광산구 정덕동 1086번지성덕중학교 건너편 062-433-3907